

제품안전동향

한국공인제품인정제도(KAS)의 이해



김익수
계량측정제도과장
02-509-7230

I. 서론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수출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품이 관련 표준을 충족함을 보여주고 제품에 대한 신뢰를 고객으로부터 불러일으키는 것이 필수적이다. 글로벌화 된 전 세계 시장은 이처럼 제품이 표준을 따른다는 것을 보장하는 인증제도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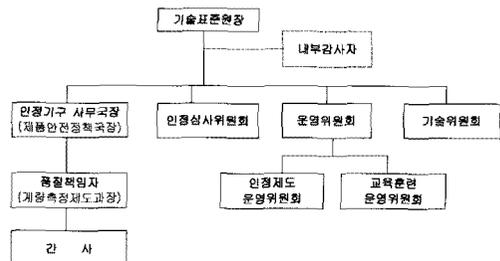
한국제품인정제도(KAS; Korea Accreditation System)는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 설치되어 있는 한국제품인정기구가 인증기관에 대하여 정해진 국제기준(ISO/IEC Guide 65)과 IAF(국제인정기구포럼)에서 정한 지침문서, 국내법 및 관련 지침 등에 따라 평가하여 제품인증수행에 있어서 관리능력이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승인해주는 제도이다.

KAS 제도는 국제적 비공인성 및 신뢰성 부족으로 수출할 경우 수입업체가 지정하는 제품인증을 다시 받아야 하는 이중부담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2000년부터 국제기구인 IAF(국제인정기구포럼)에서 제품분야에 대해서도 국제상호인정을 하자는 논의를 시작하여 제품분야 MLA(다자간 상호 승인 협정, multilateral recognition arrangement)를 도입하게 되었다.

II. 인정제도의 개요

국내기업은 민간제품인증을 통해 마케팅강화, 이미지 개선, 경쟁기업 대응 등 시장진출 수단으로 활용한다. 국내 많은 제품인증제도가 있으나 대부분이 국제적 품질기준을 따르지 않고 있어 제품 수출시 품질·성능에 대한 신뢰성 저하의 원인이 되어 왔기에 KAS와 같은 국제적 인증제도가 필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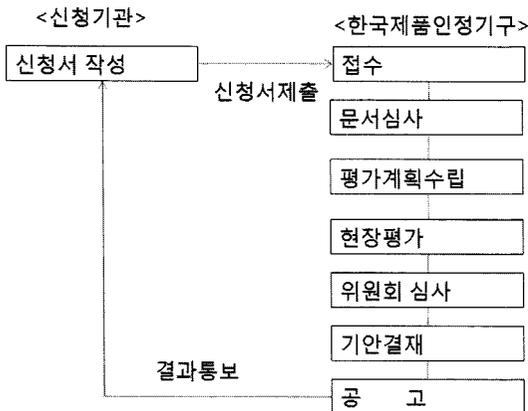
국내제품인증체계의 선진화를 위한 효율적 추진 및 국제적 신뢰도 구축을 위해 국가표준기본법 제21조(적합성 평가체계의 구축) 및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제품인증)를 근거로 2001년 한국제품인정기구(KAS)가 기술표준원에 설립되었다. KAS는 제품인증기관 인정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요령 및 세부요령[기술표준원 고시 제2007-1048호(2007.11.30)]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조직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2007년에는 PAC(Pacific Accreditation Cooperation, 태평양지역인정기구협의체) 및 IAF(International Accreditation Forum, 국제인정기구포럼)과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여 국제적 신뢰도를 제고하였다.

2008년에는 6개 KAS 인증기관이 공동마크인 V-체크마크 사용협약을 맺어 회원 간 설비 및 시험소 공유로 다양한 항목의 분석을 One-stop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사후관리절차를 강화하고 제도를 투명하게 운영하여 기타 민간 마크 인증제도와의 차별화하였다.

제품 인정대상 분야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으나 주로 형식시험과 사후관리, 시스템 평가 등을 포함하는 제품이 대상이다. 인정절차는 '제품인증기관 인정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요령에 따라 신청, 인증기관 인정신청 및 평가수행절차에 관한 세부요령에 따라 평가, 인정심사위원회 심사 후 인정서 발급'의 순서로 진행된다.



인정 유효기간은 4년으로 만료 후 신청에 의해 갱신평가를 하게 된다. 사후관리는 매년 실시하며 사후관리 결과 사안에 따라 개선명령, 마크사용 중지, 인정취소의 조치가 가능하다.

KAS 인증기관 현황은 10개 기관이며 다음과 같다.

인증기관명	인정일자	인정분야	인증제품 (인정제품명)	마크
한국선박조선시험연구원	2001.06.19	조명기기 등 11분야	3(12)	
한국산업기술시험원	2001.06.19	조명기기 등 12분야	2(2)	
한국전자시험연구원	2001.06.19	조명기기 등 8분야	2(3)	
한국가스안전공사	2004.12.24	가스기기 등 3분야	9(11)	
한국화학시험연구원	2004.12.24	레이저류 등 4분야	56(102)	
한국전기연구원 (창원·의령)	2005.04.20	퓨즈 등 7분야	8(82)	
한국전기안전공사	2005.12.09	변압기 등 7분야	47(68)	
에너지관리공단	2009.07.19	태양열 집열기 등 6분야	55(196)	
한국시험연구원	2008.07.28	철유·가스 등 7분야	-	
ITTI 시험연구원	2009.01.05	실유제품 제조업 등 7분야	-	

III. 국내외 동향

국내에도 각종 제품인증제도의 난립으로 제품인증제도에 대한 업체 및 소비자의 인식이 낮은 것이 현실이다. 최근 우리나라도 세계 각국과 FTA 체결로 부각되는 각종 인정 및 인증의 상호인정과 연계하여 국제적 신뢰도가 있는 인증제도가 요구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시험·검사 분야 뿐만 아니라 제품인정·인증정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유럽 국가들은 제품분야 인정업무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외국의 제품인증기관 수)

국	가	중	중	호	미	한	일
가	중	중	호	미	한	일	본
106	39	29	30	51	10	4	32
인증기관							인증기관

외국 인정기관의 제품인증기관은 자국 산업 경쟁력이 있는 분야에 주로 제품인증을 한다. 캐나다, 호주·뉴질랜드는 1차 산업 분야에 치중하고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2차 산업 분야(전기, 생활용품)에 치중한다.

일본의 경우 JIS마크 인증기관(32개 기관)도 ISO/IEC Guide 65등 국제적 기준에 따라 인정('05년 일본공업표준화법 개정)하고 있으며, 그 외 민간 제품인증기관(4개 기관)이 일본인정기

구(JAB)에서 인정받는다. 일본의 S마크는 일본 인정기구(JAB)에서 인정한 인증기관(JET, JQA)이 부여하는 민간인증마크로 소비자의 신뢰를 얻어 선호도가 높은 마크로 정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리튬2차전지 생산량은 2008년 기준 690백만개(셀)로 세계 생산량의 약 22%를 점하고 있으며 일본, 중국에 이어 세계 3위를 차지하고 있다.

IV. 기대효과

첫째, KAS 인증제품의 판로개척과 국내 시장 확대를 위해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에 가점(5점)을 부여('07 10월)하고 있으며 KAS인증기관의 인증제품이 방위사업청 우선구매대상 물품으로 선정('09년 7월1일) 되었다. 향후 KAS 인정제도의 우선구매 혜택을 점차 확대시키도록 추진하고 있다.

둘째, 가스, 전기전자관련 제품과 부품 및 경·중전기분야 등에서 안전 및 성능에 대해 V-체크 마크를 부여하여 인지도를 제고하였으며, 사후관리절차를 강화하여 품질의 우수성을 보장하고, 제도를 투명하게 운영하여 기타 민간마크 인증제도와는 차별화하였다. 앞으로 KAS 인증기관은 V체크 마크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V-체크 마크를 대중매체나 대형유통업체를 통해 홍보를 강화할 것이다. KAS 상징마크인 V-체크마크를 민간인증에 통합 사용함으로써 마크의 단일화 유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셋째, FTA 등 인증시장 개방에 대비 및 국제적 적합성평가에 의한 제품인증으로 수출이 증대된다. 또한 국제상호인정으로 해외에서도 국내와 같은 인정효과가 발생하여 수입국에서 제품인증을 위한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절약된다.

V. 향후 추진방향

KAS 인증제품의 수출시 적합성 인증서 상호인정으로 무역장벽을 해소할 것이다.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의 제품인정기구와 우선적으로 MOU 체결하고 타이어, 철강제품, 자동차부품, 전기전자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서상호인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원 산하시험연구원, 타 부처 인증기관·유관 단체 등의 KAS 인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제품 분야로 인정을 확대할 것이다. 중소기업청의 물품 우선구매 목록에 KAS 인증기관 인증제품이 선정되도록 협조 요청하고 지하철공사,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 우선구매 물품으로 반영 요청할 계획이다.

KAS 인정제도 내실화에 필요한 평가사를 단계적으로 육성하고 국내 KAS 평가사를 국제평가사로 육성, PAC-MLA 인정활동(회원국 신규가입·갱신 평가, 모니터링 등)을 지원하여 KAS의 국제적 위상 제고할 것이다.

| 기술표준 2009. 8